

문제해결과제를 이용한 정서인식력 검사의 개발*

이 수 정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본 연구에서는 정서의 경험과정 중 자극의 정서내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보다 정확하게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자기보고식 언어성 검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언어적으로 구성된 문제해결 과제들을 다양한 그림자극들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한국인의 표정사진, 정서적 사건의 사진, 만화들로 구성되었던 정서인식력 수행검사의 문항들은 난이도와 변별도, 그리고 타당도 지표들을 근거로 여섯 가지 기본 정서(놀라움, 두려움, 분노, 슬픔, 역겨움, 즐거움)별로 4문항씩이 선정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정서인식력 문항들의 총점은 준거측정치였던 우울증 점수와 불안 점수와 예상대로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정서인식력 손상 정도도 현재 개발된 수행검사가 지필검사보다 오히려 더 우수한 변별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정서인식력, 수행검사, 정서자극, 정신분열증의 정서인식

보이지 않는 심리적 속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개인차에 대한 관심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1800년대 말 Galton은 감각능력의 민감도를 개인간의 차를 변별하여 주는 주요한 지표로 간주하였다. 그 후 오래 동안 지적인 능력상의 차이가 인간의 심리적인 개인차를 밝혀주는 가장 대표적인 준거로서 받아들여져 왔다.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성취도 검사들은 원래 지적 수준 상의 개인차를 밝혀려 했던, 이 같은 연구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국내에서도 지적능력 검사는 거의 모든 사회분야에 걸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차 변별지표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사회적 성공을 예측하여주는 지표로서 지적인 능력이 그리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Goleman, 1995; Salovey, & Mayer, 1990; Sternberg, 1985). 여러 교육학자 및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사회적 성공을 설명하는 데에, 전통적인 지적 능력, 즉 학업적 지능보다 더 유의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무엇이지를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등장하게 된 개념들이 사회적인 대인관계능력, 정서적인 민감성, 효능감, 자아용통성 등의 개념이다.

전통적인 학업적 지능 대신 이와 같은 개인차 구인들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나가는 데에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관점은 세인들로부터 많은 공감공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능력들 상에서의 개인차를 속시원히 설명하여주는 측정의 방법은 그리 크게 공인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검사의 방식이 안고

* 본 연구는 2000년도 학술진흥재단 신진교수 연구과제(KRF-2000-003-000463)의 지원금으로 이루어졌음. 자료의 제작을 도와 준 장근영선생님, 실험에 협조하여주신 용인정신병원 임상심리과 이우경선생님, 사회교육원 최상래원장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논문의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있는 피할 수 없는 약점들 때문이었다. 즉 전통적인 언어성 자기보고의 측정치들로는 새로이 각광받게 된 대인관계 능력과 같은 매우 역동적인 심리적 특성들을 잘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태도검사나 성격검사와 같은 방식으로 대인관계능력 등을 측정한다면 응답자들의 의도적인 반응왜곡 경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 결국 비학업적인 적성(non-academic aptitude) 역시도 정답형 문항들로 구성되어야 함에 측정전문가들은 공감하였고 이에 따라 Sternberg(1985)나 몇몇 지능이론가들은 실제적인 생활상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간단한 문제해결과제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은 말 그대로 '시도'였을 뿐이지 아직까지 비학업적인 능력에 대한 공인된 검사의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 같은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비학업적인 개인차 영역 중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해결과제로 구성된 능력검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최근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인차 연구들은 많은 정신병리의 전조적인 증상으로 정서경험의 이상적인 징후를 지적한 바 있다(Archer, Hay, & Young, 1992; Walker, McGuire, Bettes, 1984). 이는 정서경험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정신병리의 진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또한 기존의 지능개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학업적인 영역에서의 개인차를 적용의 예측지표로서 개발하는 일은 나름대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감정, 즉 정서(emotion)에 대하여 전통적인 정서심리학자(Lang, 1984; 1988)는 적어도 세 가지의 주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서상태(emotional state), 정서표현(emotional expression), 정서경험(emotional experience)이 바로 이들 요소인데, 이들은 각기 정서의 신경학적, 행동학적, 인지적 측면을 지칭한다. Izard(1992)는 정서경험과 관련된 심장박동 등의 자율신경계 반응과 특정 정서의 유발자극 그리고 그와 관련된 외부사건이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과 언어적 명칭, 나아가 정서표현행동 등은 각기 중추신경계 내에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아주 가까이 인접해 있어서, 해당 조직이 활성화되면 연계된 연결고리들도 함께 활성화된다고 하였다. 예컨대 과거 감정적 사건 당시와 유사한 정서표현,

생리적 변화들은 그 중 어느 한 가지만 일치하여도 그와 관련된 인지구조가 따라서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정서가 이렇게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서에 있어서의 개인차도 이들 경험의 다각적 차원에서 탐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Cacioppo, Gardner, & Bernstone, 1999). 이런 호기심은 정서의 독립적인 경험측면이 과연 언제나 서로 조화롭게는 가하는 데 대한 의문으로 발전되어, 그 조화도 상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탐색하는 것이 정서적 적용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을 가정하여 보게 하였다. 연구자들은 실제로 정상인들의 경우 이들 정서경험의 개별 측면이 매우 균등하겠으나, 임상표본의 경우 종종 내면적으로 경험되는 정서와 표현되는 정서가 일치하지 않을 수(Kring & Neal, 1996)도, 또는 자신의 감정에는 매우 민감하나 외부의 감정적 자극에 대하여서는 비정상적으로 무덤 수도 있음(Salovey & Mayer, 1997)을 발견하였다. 임상 연구들은 특히 이와 같은 정서의 개별 측면의 불균형도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하여 일군의 연구자들은 정서경험 상의 비정상적인 괴리를 보이는 집단들을 탐색하거나(Weinberger, Schwartz, & Davidson, 1979) 또는 특정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정서적 측면의 괴리의 범위를 연구하려고 시도(Berenbaum & Oltmann, 1992; Henriques & Davidson, 1991; Kring & Neal 1996)하기도 하였다.

임상장면이 아닌 범죄학과 같은 응용영역들에 있어서도 정서경험에 있어서의 개인차는 범죄나 비행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범죄학 분야(Witkin, Mednick, Schulsinger, Bakkestrom, Christiansen, Good-enough, Hirschhorn, Lundsteen, Owen, Philip, Rubin, & Stocking, 1976)에서는 염색체와 내분비계 이상과 강력 범죄의 발생이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였고, 나아가 피부전기반사(GSR)에 있어서 살인범의 평균 각성수준이 정상인의 그것보다는 훨씬 둔감(Hare, 1994; Levenstone, Patrick, Bradley, & Lang, 2000)하다는 사실을 재차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Goleman(1995)은 범죄자들이나 습관적으로 비행을 일삼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분노에는 민감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지각하는 공감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강력범죄를 자주 유발할 것이라 추정하였다.

이렇게 보자면 개별적인 정서적 측면을 어떻게 다각적으로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특성들에 있어서 안정된 개인차를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하는 점이 정서경험에서의 개인차 측정이 당면한 문제라 결론지을 수 있다. 몇몇 연구들은 전통적인 지필검사를 동원하여 정서경험 상의 피리를 측정하려고 시도하였다. Weinberger 등(1979)은, 불안수준은 사실상 매우 높지만 자기관리를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율신경계의 흥분수준이 불안장애 환자들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높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의 불안상태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은 전혀 없었는데, 즉 신경학적으로는 지나치게 불안해하지만 스스로의 상태에 대한 인식은 정상인의 수준보다 훨씬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안하였던 정서억압의 개념은 그 후 정서연구 분야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재검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그들이 제안하였던 대로 자기보고식 지필검사를 동원하여 정서억압자들을 탐색해내는 데에 실패하였으며, 이들 집단이 보였던 특징이 과연 Freud식 억압인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표현의 억제인지 역시 심각한 논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참조, 조은경, 1997). 즉 언어적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에서 단순한 반응경향성 억제를 근거로 무의식적 정서억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반응의 의식적인 왜곡에 취약한 자기보고식 지필검사라고 해서 언제나 연구가 제약받는 것은 아니다. Swinkels와 Guiliano(1995)는 언어성 지필검사를 이용하여 정서경험 상에서의 개인차를 탐색하였는데, 이들의 연구결과는 정서의 올바른 인식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기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현상도 독립적인 두 가지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기분 모니터링 과정과 기분 명명화 과정이 바로 그것인데, 이 중 모니터링은 자신의 내적 상태에 무분별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이며, 기분 명명화는 자신의 내적 상태가 어떤 지에 관한 명확한 통찰을 정의내리는 것으로, 기분 모니터링이 우울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반면 기분 명명화는 정신병리의 예방적 요소로도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고 한다. 그 후 이들의 주장은 한국 연구자들이 수행하였던 여러 연구들(이수정, 이훈구, 1997; 이주일, 황

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에서 재검되었으며 임상적으로도 감정적인 것 자체를 통제하려 하기보다 기분에 대한 인식력을 높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기하였다.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지필연구들의 부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Parrot과 Hertel(1999)은 기존의 지필보고 방식을 이용한 연구들은, 정서손상의 기제를 인지과정의 개입 없이 연구하는 데에는 실패하였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 연구들이 택했던 자기보고 혹은 면담평가가 모두 언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환자가 사회적 규범에 적합하거나, 실험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수의적으로 반응을 왜곡할 수 있고, 또한 정서가 뚜렷하게 의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보고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인지손상이 심하거나 언어적 장애가 있을 경우, 언어반응만으로 정서장애의 효과를 관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즉 평가를 염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지필검사를 동원하여 불안을 측정하는 방식(Weinberger 등, 1979)은 응답자들의 반응왜곡 경향 때문에 정서처리 상의 손상을 순수하게 관찰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언어성 검사를 이용하여 인지손상이 심한 환자들의 감정부전 현상을 측정하는 경우 인지장애와는 독립적으로 정서손상의 정도만을 순수하게 측정할 수 없다(e.g. Parrot & Hertel, 1999).

최근 다양한 생리적 지표와 수행검사들은 인지적인 능력과는 별개로 정서경험 상에서의 개인차를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점화기법을 이용하여 정서의 경험과정 상에서 개인차를 관찰한 연구(이수정, 안석균, 2000)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자극의 정서기에 대한 일차적인 파악은 가능하나 그 후 정서적 점화로 인한 조절을 정상인만큼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놀람반사(startle reflex)를 이용한 수행검사(Curtis, Lebow, Lake, Katsanis, & Iacono, 1999)에서 역시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해서 정서가의 입력에 무작정 손상을 보이지는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최소한 불수의적인 수준에서는 정서의 경험과정이 손상된 환자들 역시 정서상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런 결과는 인지적 손상을 동반하는 환자의 정서능력을 인지기능과는 독립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준다.

이와 같이 정서의 경험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정서자극에 대한 인식영역에서 최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 연구 역시 개인의 정서인식력, 특히 외적 정서자극에 대한 인식력 상의 개인차를 측정함에 있어서, 대안적인 방법을 개발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특히 비언어성 문제해결 과제들을 이용하여 정서자극에 대한 인식력을 측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언어능력으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인 정서만의 경험과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언어적 내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부분 그림자극들로 전체 검사문항들을 구성하였으며 이들 문항들은 모두 정답형으로 제작하여 응답자들의 정서적 기능의 양적 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1에서는 이들 검사문항들의 제작과정과 구체적인 문항특질, 그리고 기분장애 집단과 정상집단 간의 정서인식력 비교를 통하여 현재 개발된 수행검사의 타당도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연구 2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정서능력 손상의 정도가 지필검사와 수행검사 점수 상에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평가되는지를 비교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에 대한 전반적인 가설은 현재 개발된 정서인식력 수행검사가 개인의 정서능력 손상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여 준다는 것이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각 문항의 개발원리와 문항의 수리적 특성들, 그리고 신뢰도 타당도 지표들을 검토하였다. 문항의 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K 대학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단 수행검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정서적 개인차를 각 문항들이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다양한 문항분석 방법을 동원하여 일단 통계적 특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된 문항들을 개별 정서별로 선정하였다. 그후 선정된 문항들을 토대로 하위 척도 점수들을 산출하여 정서관련 측정치들과의 타당도 지표들을 탐색하였다.

준거관련 타당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서는 정서인식, 표현, 조절, 정도를 측정하는 정서특성검사(이수정, 1997)와 피검자들의 우울경향성(Beck, 1967; 이봉건,

1990)과 불안경향성(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970; 김지혜, 1991)을 측정하였다. 현재 개발된 정서능력 수행검사가 제대로 개발되었다면 우울, 불안 등의 기분장애에 점수와는 부적 상관을 보여야 하고 전통적인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한 정서특성 검사의 결과와는 정적 상관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상관을 가정한 이유는 불안 및 우울장애 환자들의 정서인식력에 있어서의 왜곡현상은 여러 임상 연구들과 기억 연구들(Blaney, 1986; Matthews, 1995; Matthews, Mogg, May, & Eysenck, 1989; Mogg, Matthews, & Weinman, 1987)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의 종류나 기제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꼭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나 기분장애 집단의 경우 본인들의 장애관련 정서자극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정서인식력 상에서 정상인보다 상당히 저하를 보임이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최종적인 타당도 분석에서는 유사 정서검사 점수들과는 수렴타당도의 증거가, 정서장애 점수들과는 변별타당도의 증거가 확보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방법

피험자

경기도에 소재한 K대학에서 교양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총 304명의 대학생들이 정서인식력 수행검사의 문항분석과 타당도 분석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여학생은 122명(40.1%)이었고 남학생들은 182명(59.9%)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22세(SD = 28개월)였으며 70년 생으로부터 83년 생까지 다양하였다. 이들 중 정신장애 병력이 있었던 피험자들은 한 명도 없었으며 본인의 지능지수를 응답한 125명의 평균 IQ는 약 112(SD = 13.3)점이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정서경험, 특히 정서자극을 인식함에 있어서, 여러모로 문제점이 부각되었던 자기보고식 지필검사 대신, 실제로 자극의 정서적인 내용을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제대로 파악하는지를 문제해결과제를 활용하여 직접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종류의 정서적인 자극이

필요하였다. 언어적인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정서인식의 양을 측정해내기 위하여서는 주로 그림으로 구성된 자극을 제작·수집하였다.

정서인식력 문제의 개발을 위하여 정서자극은 주로 세 가지 종류를 사용하였다. 우선 남녀 한국인들의 표정 또는 무표정한 사진들을 수집하였는데, 이때 표정은 여섯 가지 기본정서별로 구성하였다.¹⁾ 표정사진의 제작을 위해서는 총 30명(남 10명, 여 10명)의 다중매체영상학부에서 연기를 제 일 혹은 제 이 전공하는 학부생들이 참가하였는데 이들은 각기 여섯 가지 정서적인 상황을 상상하거나 기억해내고 그때마다 가장 전형적인 표정을 지어보도록 지시받았다. 이때 각각의 정서적인 상황은 사전에 조사된 가장 전형적인 정서유발 사건목록(부록)에 근거하여 유도되었다.²⁾

최종적인 사진 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10분에서 15분씩 감정을 강력하게 유발하는 사건을 기억해내었다.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면 전문사진가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후 여섯 가지 정서별로 제작된 30장씩의 사진들에 대해 10명의 대학생들이 각 표정의 정서적 전형성과 각성의 정도를 7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였다. 각 정서별로 가장 전형적이라 보고되었던 10장씩(남 5장, 여 5장)의 표정사진을 선택하여 최종적인 문항의 제작에 사용하였다. 이 사진들의 정서적인 전형성은 놀라움 6.33(SD = 0.81), 두려움 5.91(SD = 1.12), 분노 6.02(SD = 0.52), 슬픔 5.84(SD = 0.78), 역겨움 6.01(SD = 1.08), 즐거움 6.37(SD = 0.43), 각성

정도는 놀라움 6.04(SD = 1.45), 두려움 4.88(SD = 1.87), 분노 5.09(SD = 0.84), 슬픔 4.05(SD = 2.01), 역겨움 5.41(SD = 1.12), 즐거움 5.34(SD = 1.73)이었다.

표정자극 이외에 정서문항의 제작을 위해 수집된 자료로는 정서적 사건의 사진들과 현 연구를 위해 새로이 제작된 정서적 내용의 만화들이었다. 사건사진의 경우에는 이수정(1999)의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20장(공포 5장, 역겨움 5장, 두려움 5장, 즐거움 5장)의 사진들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슬픈 내용과 놀라운 내용의 사진들이 부가적으로 수집되었다. 총 30장의 사진은 표정사진에서와 마찬가지로 10명의 대학원생들에 의하여 정서별 적합성과 각성의 정도를 7점 척도 상에서 평가받았다. 이들의 적합성 평균은 놀라움 5.23(SD = 1.78), 두려움 6.78(SD = 0.64), 분노 5.89(SD = 1.03), 슬픔 6.09(SD = 1.22), 역겨움 6.21(SD = 1.14), 즐거움 6.32(SD = 1.50)이었고 평균 각성 정도는 놀라움 5.04(SD = 1.44), 두려움 6.52(SD = 1.07), 분노 5.97(SD = 0.81), 슬픔 6.01(SD = 0.97), 역겨움 5.84(SD = 1.35), 즐거움 5.80(SD = 1.52)이었다.



그림 1. 정서인식력 수행검사의 문항 예1

자극을 다양하게 하게 만들기 위하여 여섯 가지 정서별로 만화도 제작하였는데 이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아마추어 만화가가 부록의 정서유발 상

1) 인간의 기본 정서가 몇 개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Ekman과 Davidson(1994)의 1장을 참조 현 연구에서는 Scherer와 Wallbott(1994)이 영어권 37개 국가의 정서 표현 용어들을 조사하여 가장 기본적인이라고 밝힌 7개의 정서들 중에서 범문화적 표현양식의 공통성에 있어 논란이 제기(참조 Ekman, 1994)된 죄의식을 제외한 여섯 가지 정서만을 연구범위 내에 포함시켰다.

2) 여섯 가지 기본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하여서는 정서 경험에 있어서 발달적 양상을 관찰하고자하였던 다른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자료가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36명, 중학생 34명 고등학교 35명,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슬펐던, 화났던, 놀랐던, 두려웠던, 역겨웠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개방형 질문지에 적어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부록에 정리된 사건들에 대하여 비교적 많은 수의 학생들이 언급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에 근거하여 적절한 정서적 내용이 포함되도록 그림을 그린 것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정서유발 상황(부록) 중 만화로 구성하기 좋은 세 가지 경우들을 여섯 가지 정서별로 선정하여 만화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총 18장의 만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중 주인공의 얼굴에는 표정을 그려 넣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문항의 제작 시 빈 얼굴에 어울리는 표정사진을 찾게 하기 위해서였다(그림 1과 그림 2). 만화는 이미 선정·확인된 정서유발상황에 근거하여 그려졌었기에 따로이 정서적 적절성이나 각성 정도를 평정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검사문항의 예는 그림 1과 그림 2, 그리고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한 가지 유형의 문제는 사건 사진이나 만화를 제시하고 4개의 표정사진 중 주인공의 감정상태에 가장 근접하는 사진을 찾으라고 한다거나(그림 1이나 그림 3), 혹은 사건사진들이나 만화들을 제시하고 이들 중 주인공이 경험하는 정서의 내용이 같거나 혹은 다른 것을 찾으라고 하는 유형의 문제들(그림 2)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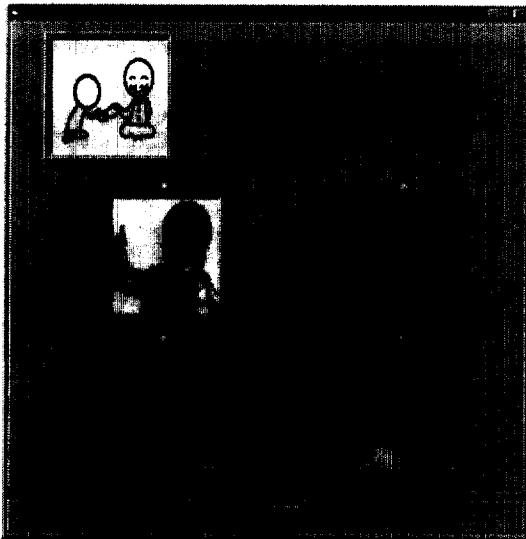


그림 2. 정서인식력 수행검사의 문항 예2

문항의 제시 및 응답자들의 반응입력은 모두 컴퓨터로 제어되었다. jpg 양식으로 변환된 그림을 일관된 문항양식으로 바꾸어 모니터 상에 제시하고 응답자들이 답을 입력하고 화살표를 클릭하면 그 다음 문항이 자동

적으로 제시되도록 하였다. 이때 총 문항은 각 정서별로 최소 5개씩을 구성하였는데, 준비된 정서 자극의 내용이 풍부했던 분노와 역겨움의 경우에는 한 문항씩을 더 제작하여 검사에 포함시켰다. 문항의 순서는 무선적으로 제시되었으며 검사가 끝나면 32개 문항에서 정답을 맞춘 총 정답의 수와, 놀라움, 두려움, 분노, 슬픔, 역겨움, 즐거움 등 여섯 가지 정서별로 답을 맞춘 숫자가 최종적으로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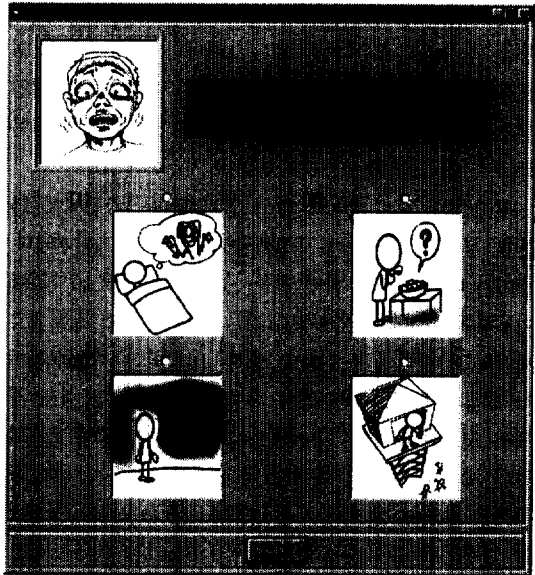


그림 3 정서인식력 수행검사의 문항 예3

준거측정치

현재 개발된 정서능력 수행검사가 개인차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정서의 인식, 조절, 표현 상의 개인차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정서특성 검사(이수정, 1997)와 Beck(1967)의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의 기질불안 척도를 함께 사용하였다. BDI 검사의 총 문항 수는 21개였던 반면 기질불안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BDI에 대한 타당도 연구(이영호, 송종용, 1993)에서 반분신뢰도 지수는 .91, 내적 일관성은 .84였다. 동 연구는 BDI에 대한 타당도 지수가 약 .77 정도 됨을 보고하였다. 기질불안 척도는 김정택(1978)이 한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타당

화하였던 것을 사용하였다. 4점 Likert 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던 기질불안 척도의 신뢰도는 약 .87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영자, 1996).

문항들의 선정기준과 수렴타당도 준거로서 사용될 정서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는, 정서를 측정하는 여러 개의 소규모 검사지로부터 3개의 구인, 정서의 인식, 표현, 조절요인을 추출하여 재구성한 정서적 특성검사가 사용되었다. 이들 각 척도는 이수정(1997)의 연구에서 .78, .88, .83의 내적 일관성을 지녔이 확인되었다. 이들 척도는 7점 Likert 형으로 구성된 10개씩의 문항들로 제작되었다. 이들 준거 측정치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내적 일관도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각 준거 측정치들의 수리적 특성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우울	불안
평균 (표준편차)	47.18 (9.16)	42.41 (8.06)	45.04 (10.43)	7.72 (5.85)	41.77 (9.16)
문항 수	10	10	10	21	20
내적 일관성	.71	.83	.84	.84	.81

연구절차

모든 피험자들은 개별적으로 검사를 수행하였다. 우선 심리학개론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검사의 개발을 위한 연구’에 참가한 실험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각기 가능한 시간대에 약속을 정하여 본 실험만을 위한 연구실에서 1인의 실험자와 피검사자가 모든 절차를 수행하였다. 일단 피험자가 도착하면 컴퓨터 앞에 앉히고 다음과 같은 실험목적과 절차에 관한 설명을 모니터 상에서 읽게 하였다.

우선 실험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실험은 개인의 정서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온라인용 검사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입니다. 피검사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모니터 상에 제시되는 다양한 문제에 답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정답을 찾기 어려운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가장 근접하는 답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각 문항들마다 제시되는 문제들을 잘 읽어보시고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답지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여

러분들의 모든 반응은 검사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인적 사항부터 입력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실험에 대한 설명을 모두 읽으면 그 다음 화면에서 학번,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령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조사 사항에 대한 입력이 끝나고 엔터를 치면 정서수행검사가 시행되었다. 각각의 문항들에 있어 답지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 문항이 모니터 상에서 제시되었다. 검사문항에 대한 반응입력이 모두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지필검사지를 통하여 정서특성 검사와 BDI, 기질불안 척도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대한 설명에서 지필검사의 완료까지 소요되는 총 시간은 평균 25분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귀가조치 하였고 모든 피험자들은 실험참가점수를 받았다.

연구결과

문항의 분석

본 연구가 원래 의도했던 바대로 각 문항들이 응답자들의 정서인식력을 측정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별 문항들에 대한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과 정답자와 오답자의 정서적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문항의 수리적 특질에 대한 분석으로는 변별도 지수로서 각 문항과 총 점간의 상관 정도(point-biserial correlation)와 각 문항의 난이도, 그리고 네 가지 답지의 적절성이 평가되었다.

우선 32개로 구성되었던 전체 검사의 평균 난이도는 .74로, 현재의 문항들이 사지선다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상적인 난이도 $(1+.25)/2$ 를 약간 웃도는 정도였다. 이는 평균 난이도 상에서 문제들이 약간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응답자들이 대부분 정서적으로 매우 건강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검사의 평균 변별도 지수는 .33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는 자극의 정서적 내용을 인식함에 있어 검사의 문항들이 비교적 우수한 변별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개별 문항들의 수리적인 특성들이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최종적인 정서인식력 수행검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상에서 문제가 있는 문항들

을 검토하였다. 문항의 변별도를 우선적인 선별지표로 삼았는데, 변별도 상에서 부적 상관을 보이거나 .1 이하로 거의 변별력이 없는 문항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문항 9, 문항 11, 문항 16, 문항 28은 변별력이 거의 0에 가깝거나 오히려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이런 문항들을 검사에 포함시키게 되면 오히려 검사의 전체적인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 문항들 중 대부분 변별력이 낮았던 최우선적인 이유는 문항의 난이도 수준이 너무 낮음으로 인해서였다. 다시 말하여 P값, 문항을 맞춘 사람들의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었다. 참고로 고전검사이론에 따른 사지선다 문항의 이상적인 난이도는 .625이며 적절한 난이도 수준이 유지될 때만이 문항들은 최상의 변별력을 지니게 된다(참조 이수정, 1999).

예상했던 대로 9번 문항의 P값은 .99, 16번 문항의 P값은 .96, 28번 문항의 P값은 .97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11번 문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P값이 .13으로 틀린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이는 표 2에서 보듯이 74%의 응답자들이 정답이었던 2번 대신 4번을 선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4번 답지가 2번보다 더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도가 부적 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총점 상 더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던 사람들만이 이 문항을 틀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확인하여 보기 위하여 맞춘 사람의 총점과 틀린 사람의 총점을 비교하여 본 결과, 이 문항을 맞춘 사람들의 수행검사 총점의 평균은 18.11(SD = 1.94)이었고 틀린 사람들의 평균은 17.58(SD = 2.39)이었다. 예상대로 정답자들이 수행검사의 총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문항의 변별력을 감소시키는 4번 답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난이도를 좀 쉽게 만들면 변별력도 향상될 것이기에 문항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되었다.

현재 개발 중인 검사와 함께 개인의 정서적 특성들을 측정하는 또 다른 검사를 실시하였다. 정서의 인식, 표현 조절 세 가지 측면에서 응답자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조사하였는데, 지필양식으로 측정된 이 검사지의 결과와 현재 만들어진 문항들로부터의 결과가 과연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부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표 2. 문항분석 결과

문항번호	문항 통계치			개별 답지의 통계치			정답
	난이도	r_{pbis}		난이도	r_{pbis}		
문항 1	.61	.19		1	.61	.19	*
				2	.05	-.14	
				3	.01	.01	
				4	.32	-.15	
문항 2	.61	.25		1	.61	.25	*
				2	.05	-.03	
				3	.04	-.26	
				4	.30	-.14	
문항 3	.70	.21		1	.70	.21	*
				2	.18	-.12	
				3	.07	-.09	
				4	.06	-.12	
문항 4	.80	.40		1	.11	-.22	
				2	.05	-.19	
				3	.05	-.26	
				4	.80	.40	*
문항 5	.88	.22		1	.88	.22	*
				2	.05	-.08	
				3	.03	-.12	
				4	.03	-.20	
문항 6	.89	.28		1	.06	-.20	
				2	.04	-.14	
				3	.01	-.12	
				4	.89	.28	*
문항 7	.79	.40		1	.03	-.10	
				2	.79	.40	*
				3	.13	-.32	
				4	.05	-.17	
문항 8	.49	.23		1	.01	-.12	
				2	.38	-.13	
				3	.11	-.14	
				4	.49	.23	*
문항 9	.99	.05		1	.01	-.05	
				2	.00		
				3	.00		
				4	.99	.05	*
문항 10	.44	.36		1	.01	-.29	
				2	.19	-.20	
				3	.44	.36	*
				4	.35	-.14	
문항 11	.13	.05		1	.11	-.02	
				2	.13	.05	*
				3	.03	-.27	
				4	.74	.08	?
문항 12	.36	.31		1	.20	-.06	
				2	.13	-.13	
				3	.36	.31	*
				4	.30	-.18	

* 표시된 것이 정답지

표 2. 계속

문항번호	문항 통계치		개별 답지의 통계치			
	난이도	r_{pbis}	난이도	r_{pbis}	정답	
문항 13	.88	.21	1	.88	.21	*
			2	.01	-.08	
			3	.04	-.14	
			4	.07	-.13	
문항 14	.97	.16	1	.00		
			2	.01	-.03	
			3	.01	-.14	
			4	.97	.16	*
문항 15	.34	.30	1	.34	.30	*
			2	.11	-.12	
			3	.02	.03	
			4	.53	-.23	
문항 16	.96	.05	1	.96	.05	*
			2	.00		
			3	.01	-.03	
			4	.01	-.02	
문항 17	.97	.14	1	.01	-.05	
			2	.97	.14	*
			3	.02	-.13	
			4	.00		
문항 18	.83	.17	1	.03	-.06	
			2	.06	-.00	
			3	.08	-.20	
			4	.83	.17	*
문항 19	.97	.14	1	.01	-.01	
			2	.01	-.17	
			3	.00		
			4	.97	.14	*
문항 20	.82	.23	1	.82	.23	*
			2	.05	-.11	
			3	.05	-.12	
			4	.07	-.15	
문항 21	.63	.42	1	.02	-.28	
			2	.03	-.10	
			3	.31	-.29	
			4	.63	.42	*
문항 22	.77	.21	1	.00		
			2	.77	.21	*
			3	.00		
			4	.23	-.21	
문항 23	.76	.27	1	.76	.27	*
			2	.09	-.18	
			3	.07	-.02	
			4	.05	-.16	
문항 24	.77	.15	1	.13	-.13	
			2	.09	-.02	
			3	.01	-.14	
			4	.77	.15	*

* 표시된 것이 정답지

표 2. 계속

문항번호	문항 통계치		개별 답지의 통계치			
	난이도	r_{pbis}	난이도	r_{pbis}	정답	
문항 25	.81	.32	1	.00		
			2	.81	.32	*
			3	.03	-.07	
			4	.01	-.25	
문항 26	.95	.17	1	.00		
			2	.03	-.06	
			3	.02	-.21	
			4	.95	.17	*
문항 27	.30	.21	1	.25	-.11	
			2	.30	.21	*
			3	.07	-.07	
			4	.38	-.06	
문항 28	.97	-.02	1	.01	-.01	
			2	.01	.04	
			3	.97	-.02	*
			4	.00		
문항 29	.94	.16	1	.00		
			2	.03	-.01	
			3	.94	.16	*
			4	.02	-.20	
문항 30	.98	.18	1	.01	-.12	
			2	.00		
			3	.98	.18	*
			4	.01	-.14	
문항 31	.95	.16	1	.01	-.05	
			2	.01	.01	
			3	.04	-.17	
			4	.95	.16	*
문항 32	.45	.29	1	.06	-.06	
			2	.45	.29	*
			3	.01	-.16	
			4	.48	-.23	

* 표시된 것이 정답지

였다. 정서인식, 조절, 표현에 관한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이미 이수정(1997)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현 연구에 있어서도 세 척도 모두 우수한 신뢰성을 지니고 있음이 우선 확인되었다(표 1).

개별 문항의 선별 기준으로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이외에도 각 문항이 정서적 개인차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각 문항의 정답자와 오답자들의 정서인식, 표현, 조절 상의 특성들이 탐색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답자와 오답자의 정서 척도들에 있어서의 평균에 대한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3에는 이에

대한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t 통계치에 있어서 양수를 보인 경우 문제해결 과제에 있어 정답을 맞춘 사람들이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된 정서특성검사 상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점수를 기록하였음을 나타낸다. 유의도 .05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대하였던 방향으로 통계적 영가설을 기각했던 문항들은 문항 1, 문항 3, 문항 11, 문항 19, 문항 29, 문항 31 등이었다. 즉 이 문항들을 제대로 맞춘 사람들은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된 정서적 특성검사 상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인 정서인식력 수행검사의 하위척도에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표 2에 정리된 문항분석의 결과, 문항 9 문항 11, 문항 16, 문항 28은 변별도 지표 상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를 보인 문항들이었다. 이들 문항들에 있어서 정답자와 오답자들이 어떤 정서적 특성을 지니는지를 확인하여 보았다. 문항 9의 경우에는 정답자들보다 오히려 오답자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우수한 정서인식과 조절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문항은 검사 전체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낮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짐작되었다. 논란이 있었던 문항 11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답자들이 자기보고 상에서도 정서를 더 잘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문항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버리기보다는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검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문항 16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서특성검사 점수 상에 있어서 정답자와 오답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발견할 수 없었다. 변별도 지표가 오히려 부적이었던 문항 28의 경우에는 정서표현력에 있어서 오답자들이 정답자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우수한 표현력을 지녔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정서적 특성상에 있어서 정답자와 오답자간에 예상되었던 차이가 오히려 역으로 산출된 문항들은 문항 5, 문항 12, 문항 14, 문항 18, 문항 20, 문항 24, 문항 27 등이었다. 이들 문제점이 발견된 문항들을 제외하고 각 정서별로 남아 있는 문항들을 세어 본 결과, 대략 4개씩의 문항들로 하위척도를 구성하면 될 것이라 판단되었다. 놀라움 척도에 있어서 준거관련 지표 상에서 역상관을 보인 문항 5를 제외하고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를 선택하였다. 두려움 척도에 있어서는 변별력에 하자가 있었던 문항 9를 제외하고 문항 6, 문항 7, 문항 8, 문항 10을 선택하였다. 분노 척도에 있어서는 준거관련 지표 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문항 14와 변별력에 문제가 있었던 문항 16을 제외하고 대신 수정된 문항 11과 문항 12, 문항 13, 문항 15를 선택하였다. 슬픔 척도에 있어서는 준거관련 지표 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문항 18을 제외하고 문항 17, 문항 19, 문항 20, 문항 21을 선택하였다. 역겨움 척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낮았던 문항 24와 준거관련 지표 상에 있어서 역상관을 보인 문항 27을 제외하고 문항 22, 문항 23, 문항 25, 문항 26을 선택하였다. 즐거움 척도에 있어서는 변별력에 문제가 있었던 문항 28을 제외하고 문항 29, 문항 30, 문항 31, 문항 32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들 4개씩의 문항들로 하위척도를 구성하였다.

표 3. 정답자와 오답자의 정서적 특성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문항 1	정	46.96(9.30)	42.85(8.47)	46.65(10.99)
	오	47.53(8.97)	41.75(7.37)	43.99(9.31)
	통계치	$t_{302}=-.54$	$t_{302}=1.16$	$t_{302}=2.19^*$
문항 2	정	46.73(9.11)	43.59(8.09)	44.67(10.20)
	오	47.90(9.24)	41.67(7.97)	45.63(10.79)
	통계치	$t_{302}=-1.69$	$t_{302}=2.04^*$	$t_{302}=-.78$
문항 3	정	48.72(9.26)	43.17(8.02)	46.33(10.72)
	오	43.65(7.89)	40.67(7.93)	42.07(9.08)
	통계치	$t_{302}=4.57^{***}$	$t_{302}=2.50^*$	$t_{302}=3.33^{***}$
문항 4	정	47.10(8.90)	42.67(7.83)	45.08(10.31)
	오	47.53(10.23)	41.37(8.95)	44.87(10.96)
	통계치	$t_{302}=-.30$	$t_{302}=1.12$	$t_{302}=.14$
문항 5	정	47.16(9.29)	41.77(7.75)	45.22(10.16)
	오	47.37(8.31)	46.95(8.86)	43.79(12.23)
	통계치	$t_{302}=-.13$	$t_{302}=-3.79^{***}$	$t_{302}=.79$
문항 6	정	47.36(9.10)	42.67(8.07)	45.13(10.42)
	오	45.76(9.60)	40.41(7.86)	44.29(10.62)
	통계치	$t_{302}=.96$	$t_{302}=1.54$	$t_{302}=.44$
문항 7	정	47.48(9.16)	42.68(7.86)	45.10(10.30)
	오	46.06(9.14)	41.41(8.78)	44.81(10.97)
	통계치	$t_{302}=1.10$	$t_{302}=1.13$	$t_{302}=.20$
문항 8	정	46.77(9.82)	42.24(8.44)	44.88(11.73)
	오	47.58(8.48)	42.58(7.71)	45.19(9.01)
	통계치	$t_{302}=-.77$	$t_{302}=-.37$	$t_{302}=-.26$

* $p < .05$, ** $p < .01$, *** $p < .001$

표 3. 계속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문항 9	정	47.12(9.19)	42.48(8.10)	43.93(10.44)
	오	54.00(9.62)	37.50(5.73)	55.50(4.89)
	통계치	$t_{302}=-3.06^*$	$t_{302}=1.23$	$t_{302}=-5.48^{**}$
문항 10	정	47.33(8.77)	43.10(6.84)	44.55(11.17)
	오	47.07(9.47)	41.87(8.89)	45.42(9.81)
	통계치	$t_{302}=.24$	$t_{302}=1.33$	$t_{302}=-.72$
문항 11	정	50.11(8.09)	43.05(6.70)	46.89(10.81)
	오	46.77(9.24)	42.32(8.25)	44.77(10.36)
	통계치	$t_{302}=2.11^*$	$t_{302}=.52$	$t_{302}=1.17$
문항 12	정	46.13(8.99)	41.33(7.76)	44.22(10.70)
	오	47.78(9.22)	43.03(8.19)	45.51(10.27)
	통계치	$t_{302}=-1.52$	$t_{302}=-1.78$	$t_{302}=-1.03$
문항 13	정	46.90(9.36)	42.24(7.85)	45.09(10.72)
	오	49.28(7.24)	43.72(9.51)	44.67(8.04)
	통계치	$t_{302}=-1.46$	$t_{302}=-.89$	$t_{302}=.23$
문항 14	정	47.09(9.26)	42.44(8.18)	45.02(10.51)
	오	50.00(4.47)	41.60(5.50)	45.60(8.13)
	통계치	$t_{302}=-2.02^*$	$t_{302}=.32$	$t_{302}=-.17$
문항 15	정	47.71(8.57)	41.81(8.15)	44.79(10.81)
	오	46.91(9.46)	42.73(8.02)	45.17(10.25)
	통계치	$t_{302}=.72$	$t_{302}=-.95$	$t_{302}=-.30$
문항 16	정	47.32(8.96)	42.34(8.15)	44.89(10.42)
	오	44.00(10.28)	44.17(5.61)	48.67(10.40)
	통계치	$t_{302}=1.23$	$t_{302}=-.77$	$t_{302}=-1.23$
문항 17	정	47.17(9.15)	42.46(8.10)	44.69(10.34)
	오	47.75(10.07)	40.75(6.61)	51.65(7.32)
	통계치	$t_{302}=-.18$	$t_{302}=.59$	$t_{302}=-1.64$
문항 18	정	46.91(9.50)	42.00(7.75)	44.42(10.30)
	오	48.44(7.31)	44.33(9.22)	47.93(10.60)
	통계치	$t_{302}=-1.12$	$t_{302}=-2.01^*$	$t_{302}=-2.26^*$
문항 19	정	47.35(9.05)	42.63(8.09)	45.10(10.50)
	오	42.20(11.44)	36.20(4.68)	43.40(8.07)
	통계치	$t_{302}=2.11^*$	$t_{302}=2.50^{**}$	$t_{302}=.51$
문항 20	정	46.62(9.11)	41.84(7.81)	44.65(10.09)
	오	49.92(8.97)	45.19(8.74)	46.92(11.84)
	통계치	$t_{302}=-2.39^*$	$t_{302}=-2.76^{**}$	$t_{302}=-1.43$
문항 21	정	46.79(9.21)	41.75(7.79)	45.04(10.25)
	오	47.86(9.08)	43.55(8.43)	45.04(10.77)
	통계치	$t_{302}=-.98$	$t_{302}=-1.89$	$t_{302}=.01$
문항 22	정	47.40(9.31)	42.91(8.25)	44.84(10.48)
	오	46.46(8.66)	40.77(7.24)	45.71(10.29)
	통계치	$t_{302}=.76$	$t_{302}=1.99^*$	$t_{302}=-.62$
문항 23	정	47.41(9.34)	42.09(8.30)	45.23(10.61)
	오	46.47(8.57)	43.47(7.21)	44.42(9.87)
	통계치	$t_{302}=.76$	$t_{302}=-1.28$	$t_{302}=.58$
문항 24	정	46.72(9.36)	42.15(7.90)	44.79(10.66)
	오	50.74(8.31)	43.31(8.58)	45.89(9.63)
	통계치	$t_{302}=-2.04^*$	$t_{302}=-1.06$	$t_{302}=-.77$

* $p < .05$, ** $p < .01$, *** $p < .001$

표 3. 계속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문항 25	정	47.49(9.28)	42.62(8.28)	44.82(10.50)
	오	45.90(8.56)	41.55(7.06)	45.97(10.13)
	통계치	$t_{302}=1.19$	$t_{302}=.91$	$t_{302}=-.75$
문항 26	정	47.11(9.03)	42.22(7.88)	44.99(10.43)
	오	48.50(11.45)	45.88(10.51)	46.00(10.72)
	통계치	$t_{302}=-.59$	$t_{302}=-1.37$	$t_{302}=-.38$
문항 27	정	44.84(11.13)	40.31(8.52)	42.60(10.74)
	오	48.17(8.01)	43.30(7.71)	46.07(10.14)
	통계치	$t_{302}=-2.93^{**}$	$t_{302}=-2.99^{**}$	$t_{302}=-2.67^*$
문항 28	정	47.20(9.25)	42.30(8.02)	45.18(10.40)
	오	46.75(4.62)	48.75(8.86)	39.75(10.59)
	통계치	$t_{302}=.13$	$t_{302}=-2.55^*$	$t_{302}=1.46$
문항 29	정	47.18(9.17)	42.63(8.06)	45.02(10.61)
	오	47.22(9.14)	39.00(7.56)	45.33(7.05)
	통계치	$t_{302}=-.02$	$t_{302}=1.97^*$	$t_{302}=-.12$
문항 30	정	47.21(9.23)	42.53(8.06)	45.04(10.44)
	오	46.00(4.73)	36.67(6.28)	45.00(10.55)
	통계치	$t_{302}=.32$	$t_{302}=2.25^*$	$t_{302}=.01$
문항 31	정	47.49(9.13)	42.55(8.00)	45.31(10.44)
	오	41.75(8.11)	40.00(9.11)	40.13(9.17)
	통계치	$t_{302}=2.46^*$	$t_{302}=1.23$	$t_{302}=1.98^*$
문항 32	정	47.15(8.97)	42.12(7.26)	46.12(11.24)
	오	47.21(9.33)	42.65(8.67)	44.17(9.67)
	통계치	$t_{302}=-.06$	$t_{302}=-.58$	$t_{302}=1.63$

* $p < .05$, ** $p < .01$, *** $p < .001$

상관계수를 이용한 타당도 분석

정서인식력 수행검사의 타당도를 확인하여보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기본장애인 우울증 점수와 기질불안 점수를 수집하였다. 현재 개발된 수행검사가 목적한 바대로 문제해결과제를 통하여 정서능력 상의 개인차를 측정한다면 이들 정서적 장애 점수와는 부적 상관을 보여

표 4. 수행검사 총점과 정서 특성, 우울, 불안 점수와의 상관관계수

	수행총점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우울총점	불안총점
수행총점						
정서인식	.182**					
정서표현	.033	.388***				
정서조절	.007	.540***	.258***			
우울총점	-.169*	-.428***	-.282***	-.470***		
불안총점	-.083	-.551***	-.375***	-.559***	.792***	

* $p < .05$, ** $p < .01$, *** $p < .001$

야 할 것이다. 표 4에는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던 정서특성검사 점수들과 수행검사의 총점이 응답자들의 우울, 불안 점수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가 정리되어 있다.

표 4는 한 검사 상에서 측정하였던 정서인식 표현 및 조절 상의 개인차가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간의 관련성은 상당히 일관성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 .79라는 정적 상관을 지닌 기분장애 점수들, 즉 우울경향과 불안경향은 이들 세 가지 정서 특성 점수들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우울감을 많이 느낄수록 정서인식력은 떨어지고($r = -.43, p < .001$) 정서적 표현 역시 줄어들며($r = -.28, p < .001$),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r = -.47, p < .001$) 나타났다. 또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에도 정서인식력은 떨어지고($r = -.55, p < .001$), 정서표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며($r = -.38, p < .001$), 조절도 곤란한 것으로($r = -.56, p < .001$) 나타났다. 그러나 이때 유의하여야 하는 점은 우울이나 불안 경향 때문에 정서특성 상의 점수들이 저하되는지 아니면 정서적 문제 때문에 기분장애가 유발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상관계수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종적으로 현 연구의 궁극적인 준거지표였던 기분장애 점수들과 수행검사 총점과의 관계는 우울증세만이 α 는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는데, 우울증세가 심할수록 현재 개발된 정서내용이 포함된 문제해결과제의 수행이 저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안증세의 경우에는 상관의 방향성은 예상했던 대로였으나 영가설을 기각하지는 못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수행검사의 하위척도 점수들과 준거측정치들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표 5에는 여섯 가지 하위척도의 점수들과 정서특성검사 점수들, 그리고 기분장애 점수들의 상관계수들이 정리되어 있다. 우선 수행검사의 하위척도간 상관 정도를 살펴보면 비교적 적절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극내용 중 두려움 단서를 잘 포착하지 못할수록 분노단서도 포착하지 못하였으며($r = .13, p < .05$), 슬픈 자극을 잘 파악하지 못할수록 분노 단서도 잘 맞추지 못하였다($r = .23, p < .001$). 놀라움을 잘 포착하지 못할수록 역겨운 단서도 잘 알아맞히지 못하였고($r = .18, p < .001$), 슬픈 내용을 못 맞출수록 역겨움의 문제도 잘 풀지 못했다($r = .12, p < .05$). 즐거움의 단서를 모를수록 두려움($r = .27, p < .001$)이나 역겨움의 단서를 잘 파악하지 못하였다($r = .13, p < .05$).

준거측정치였던 우울 및 불안 점수와 각 하위척도 점수간의 관계에서는 정서자극 중 즐거움과 관련된 문제들이 특히 관련이 있었는데, 우울 경향($r = -.20, p < .01$)과 불안 경향($r = -.15, p < .05$)이 높을수록 즐거움을 포착해내는 정서문제들을 잘 풀지 못하였다. 역겨움을 파악하는 문제도 개인의 우울 경향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r = -.13, p < .05$)이 확인되었다.

표 5. 수행검사의 하위척도와 정서 특성, 우울, 불안 점수와의 상관계수

	정서 인식	정서 표현	정서 조절	우울 총점	불안 총점	놀라움	두려움	분노	슬픔	역겨움	즐거움
정서인식											
정서표현	.388***										
정서조절	.540***	.258***									
우울총점	-.428***	-.130*	-.470***								
불안총점	-.551***	-.165*	-.559***	.792***							
놀라움	.064	.067	.007	-.097	-.083						
두려움	.029	.085	-.016	-.015	.038	.043					
분노	.066	-.062	.006	-.081	-.025	.073	.130*				
슬픔	-.097	-.125*	-.091	-.040	.032	.095	.232***	.075			
역겨움	.076	.019	-.031	-.132*	.013	.182***	.056	.094	.116*		
즐거움	.052	.063	.114*	-.200**	-.152*	.006	.265***	.095	.012	.132*	

* $p < .05$, ** $p < .01$, *** $p < .001$

우울증세와 불안증세에 대한 수행검사의 변별력분석

임상집단은 아니나 우울증세와 불안증세가 심한 집단을 변별해 냄에 있어 수행검사점수와 하위 척도점수, 그리고 정서특성검사 점수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를 관찰하여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과 표 7에는 일원변량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들의 상대적인 변별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총점 대신 하위척도 점수들을 정서특성 점수들과 함께 예측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6. 각 하위 척도에 있어서의 우울 집단 대 정상 통제군의 평균

	정상(n=26)	우울(n=30)	t ₅₄
정서인식	54.62(5.19)	42.00(10.99)	5.35***
정서표현	43.38(7.60)	42.80(8.85)	.79
정서조절	54.62(5.19)	36.67(11.07)	6.28***
놀라움	2.62(1.30)	2.53(1.11)	.80
두려움	2.77(.90)	2.53(1.11)	.39
분노	2.54(.76)	2.13(.73)	2.03*
슬픔	3.15(.67)	3.33(.61)	1.05
역겨움	3.38(.75)	3.00(.83)	1.81
즐거움	3.54(.65)	3.20(.66)	2.01*

* p < .05, ** p < .01, *** p < .001

우선 우울증세와 불안증세에 있어서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상위의 점수를 획득한 집단과 1 표준편차 하위의 점수를 획득한 집단을 구분하였다. BDI 평균은 7.72 표준편차는 5.85였고 기질불안 점수의 경우 평균은 41.77이었고 표준편차는 9.16이었다. 이 기준으로 분류된 우울집단과 불안집단이 과연 정서특성검사의 하위 척도와 수행검사의 하위척도 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점수 상의 차이를 지니는지 확인하여보기 위하여 반복측정치를 위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9개의 정서의 하위요인들을 피험자내 변수로 하고 우울/비우울 집단을 피험자간 변수로 하여 변량분석을 한 결과,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_{8, 47} = 9.90, p < .001$), 이는 정서측정치들 상에서 나타나는 집단간 차이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9개의 정서의 하위요인들을 피험자내 변수로 하고 불안/비불안 집단을 피험자간 변수로 하여 변량분석을 한 결과에서 역시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8, 47} = 15.11, p <$

.001). 6과 표 7에는 개별 정서 측정치들에 있어서 집단 간 쌍별비교의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우선 우울집단과 정상 통제군은 자기보고검사 점수 중 정서의 인식력과 조절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점수간의 차이를 보였다. 정상집단이 우울집단보다 더 우수한 정서인식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t_{54} = 5.61, p < .001$), 정서조절력 역시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t_{54} = 6.45, p < .001$). 수행검사의 하위척도 상에 있어서는 분노와 즐거움 점수 상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우울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하여 분노와 관련된 자극($t_{54} = 2.03, p < .05$)과 즐거움과 관련된 정서자극($t_{54} = 2.01, p < .05$)을 더 잘못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적으로 각 하위척도간의 공변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 두 집단을 변별해내기 위한 잠재적 정서요인을 확인하여보기 위하여 stepwise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울집단을 정상범주로부터 변별해내는 데에 유용한 한 개의 잠재요인들이 각기 산출되었는데, 이 요인은 정서의 조절, 표현, 슬픔의 선형변환에 의하여 구성되었다. 이들 세 변수에 대한 Lamda는 변수가 하나일 때 .58, 두 개일 때 .52, 세 개일 때 .45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F 통계치는 각기 39.39($p < .001$), 25.00($p < .001$), 21.24($p < .001$)였다. 이에 대한 tolerance는 변수가 하나일 때 .65, 둘일 때 .46, 셋일 때 .62로 변수가 세 개 포함되었을 때부터 tolerance가 다시 증가하였다. 이 세 변수로 구성된 잠재요인의 Lamda는 .45였고 그에 대한 χ_3 는 42.00($p < .001$)이었다. 이 세 변수의 표준화된 정준판별 함수 상에서의 계수는 슬픔이 .609, 정서표현이 -.921, 정서조절이 -1.233있으며 우울집단과 정상집단의 중심점은 이 함수 상에서 각기 1.012와 -1.168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한 사람들은 정서의 표현과 조절의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상대적으로 우울한 자극에 대해서는 더 민감한 경향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평균의 상 하위 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분류된 불안 집단과 정상 통제군은 자기보고검사 점수 중 정서의 인식력과 표현력, 조절력 모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점수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정상집단이 불안집단보다 더 우수한 정서인식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

표 7. 각 하위 척도에 있어서의 불안 집단 대 정상 통제군의 평균

	정상(n=28)	불안(n=28)	t ₅₄
정서인식	55.50(5.92)	38.07(9.94)	7.97***
정서표현	44.43(7.31)	37.64(8.75)	3.15**
정서조절	55.64(7.03)	33.43(11.79)	8.57***
놀라움	2.64(1.19)	2.43(1.26)	.65
두려움	2.71(.81)	2.43(1.26)	1.01
분노	2.36(.83)	2.43(.63)	.36
슬픔	3.36(.73)	3.42(.63)	.39
역겨움	3.07(.72)	3.14(.93)	.32
즐거움	3.57(.63)	3.26(.71)	1.59

* $p < .05$, ** $p < .01$, *** $p < .001$

였으며($t_{54} = 7.97, p < .001$), 정서의 표현력에서도 더 우수하였고($t_{54} = 3.15, p < .01$), 정서조절력 역시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t_{54} = 8.57, p < .001$). 우울집단에 대한 일원변량분석과는 달리 불안집단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에서는 수행점사의 하위척도들에 있어서 정상 통제군과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후속적으로 각 하위척도간의 공변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stepwise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불안집단을 정상범주로부터 변별해내는 데에 유용한 개의 잠재요인들이 각기 산출되었는데, 이 요인은 정서의 조절, 인식, 두려움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세 변수에 대한 Lamda는 변수가 하나일 때 .42, 두 개일 때 .35, 세 개일 때 .31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F 통계치는 73.36($p < .001$), 50.40($p < .001$), 37.83($p < .001$)이었다. 이에 대한 tolerance는 변수가 하나일 때 .71, 둘일 때 .85, 셋일 때 .80으로 변수가 두 개 포함되었을 때부터 tolerance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변수로 구성된 잠재요인의 Lamda는 .31였고 그에 대한 χ^2 는 60.78($p < .001$)이었다. 이 세 변수의 표준화된 정준판별 함수 상에서의 계수는 두려움이 .401, 정서표현이 .449, 정서조절이 .802였으며 불안집단과 정상집단의 중심점은 이 함수 상에서 각기 1.451와 -1.451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한 사람들은 정서의 인식과 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동시에 자극내용 중 위협적인 요인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변량분석과 판별분석의 결과가 재미있었던 점은

불안 집단의 경우 정서특성 점수 상에 있어 정상인들보다 더 장애를 보임과 함께 불안을 야기하였던 위협적인 정서내용에 대해 더 둔감하였으나, 우울 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서의 다양한 측면에서 손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종류의 정서적인 내용에 비하여 자극정보에 포함된 슬픈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더 잘 파악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변수들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였던 판별분석 결과 나타난 사실이다. 그러나 일원변량분석의 결과 우울집단과 정상집단간의 이런 차이는 통계적 영가설을 기각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구의 대상이 정신병력이 없는 정상적인 대학생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좀더 치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논 의

연구 1에서는 새로이 개발된 비언어성 정서 수행점사의 문항분석 및 타당도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거창한 취지 아래 개발을 시작했던 정서 수행점사가 실제로 제작을 완료하고 보니 개인의 정서적 특성들 중 매우 협소한 부분만을 측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서의 인식, 표현, 조절 외 다양한 측면들 중에서 현재 개발된 점사는 자극의 정서적 내용을 얼마나 민감하게 포착하느냐 하는 것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서인식력 수행점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검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것이 Swinkles와 Guiliano(1995)가 언급하는, 자신의 감정적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칭하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아니다. 외부 자극들 중에서 정서적 내용을 잘 포착하는 측면과 스스로의 정서에 민감한 측면은 엄연히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만 고려해 볼 때에도 우리는 개인의 정서경험이 상당히 다양한 측면을 지닐 수 있겠구나 하고 짐작하여 볼 수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지 한 개의 간편형 검사로는 개인의 정서적 개인차를 측정한다는 것이 턱없이 부족할 것임을 짐작하여 볼 수 있다. 보다 다양한 측정의 방안을 동원해야 만이 개인의 정서적인 특질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와 같은 새로운 정서측정법의 개발은 나름대로

로 의의가 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전통적인 자기보고 방식이 아니더라도 정서적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으며 검사의 점수가 충분한 변산성을 반영하여 좁은, 보다 다양한 측정지표의 개발이 시급함을 다시금 절감하게 한다. 다만 가장 이쉽게 생각하였던 점은 이와 같은 검사의 용도에 대해서이다. 매우 쉬운 문제들로 구성된 이 같은 수행검사의 대상을 정상인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 내에서의 정서적 단서에 이미 잘 기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정서인식력 과제 상의 점수의 변산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현 연구에서는 나름대로 타당한 집단간 차이를 포착하여 냈지만, 집단간 효과의 크기가 매우 작았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 검사가 활용되어야 할 장면은 임상환경이라 사료된다. 만일 정서인식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감정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 또는 공포 혹은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이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현재의 수행검사 점수를 통하여 정서적 특성을 능력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좀더 명백하게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가장 감정부전 증상이 심한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개발된 정서인식력 수행검사가 정서능력 상에서 얼마나 개인차를 잘 반영하여 주는지에 대해 확인하여 보았다. 문제해결력 과제들로 구성된 현재의 수행검사가 지필검사에 비하여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정서병리의 증세를 반영하여 주는지도 부가적으로 조사하여 보았다.

연구 2

여러 연구들에서 가장 심각한 정서장애인 감정부전, 즉 정서를 잘 경험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하는 증상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현 연구에서는 정서적 손상이 가장 심한 준거집단으로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을 선정하여 정상 통제군과 정서장애 집단간의 차이가 현재 개발된 정서수행검사 상에서 제대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보고자 하였다. 물론 연구 1에서 우울증세와 불안증

세를 지닌 대학생들을 변별해냄에 있어 수행검사의 하위 척도들이 비교적 유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나 이들은 정신병력이 없는 정상인들이었기에 집단간의 차가 그리 현저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 2에서는 수행검사가 지필검사에 비하여 정서장애의 정도를 얼마나 더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지를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확인하여 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진단, 치료하는 임상인들이 가장 자주 지적하는 점은 정신병리 환자들이 자신의 정서경험 상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치료자들이 보기에는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인식 및 처리에 가시적인 문제를 뚜렷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구두로 질의할 시 많은 수의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정서경험 상에 있어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정서장애에 대한 측정도구들 상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할 때에, 증상의 변화 정도를 민감하게 포착해 내는 측정도구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대부분의 측정도구들이 언어적으로 구성된 지필검사이며 각 문항들에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 즉 자신의 병리적 증상에 대한 인식이 명확치 않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경우 스스로의 장애 정도를 잘 못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치료장면이 내포한 평가적 의미를 고려할 필요 역시 있는데, 입원환자들의 경우 보다 빠른 퇴원을 위하여 본인의 회복 정도를 과장하여 보고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언어적 지필검사를 이용한 Likert형 정서측정치들의 점수들을 왜곡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약점이 현재와 같이 개발된 수행검사 상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연구 2에서는 확인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전반적인 가설은 Likert형 문항들로 구성된 정서특성검사들보다는 문제해결 과제로 구성된 현재의 수행검사가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정서장애 정도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여 주리라는 것이다.

연구방법

피험자

연구 2에는 정신병리적 증상을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정상인 158인(남 92명, 여 66명)과 정신분열증 환자군 50인(남 23명, 여 27명)이 참가하였다. 환자군의 포함기준은 2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의식소실을 동반한 뇌손상, 간질발작, 정신병적 정신질환, 및 신경과적 질환의 기왕력이 없는 자로 삼았다(표 8). 이들의 평균 연령은 39.4세(SD = 4.2세)였다. 정신분열증 환자집단과 가능한 비슷한 연령층을 정상 통제군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경기지역 K 대학의 사회교육원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 중 비교집단을 선발하였다. 실험에 참가하였던 정상인들은 정신병력이 전혀 없었던 성인들로서 평균 연령은 약 33.2세 (SD = 3.9세)였다.

표 8. 사회 인구학적 변인, 임상 변인¹

	정상 비교군 (n=153)	정신분열증군 (n=50)
성별(남/여)	92/66	23/27
나이(년)	33.2(3.9)	39.4(4.2)
교육 정도(년)	15.8(1.8)	12.3(2.9)
발병 연령(년)		22.2(2.6)
이환 기간(월)		63.2(56.1)
유형(망상형/미분형)		45/5
PANSS(점수) ²		
양성 증상		13.5(3.6)
음성 증상		14.8(3.7)
일반 정신병리		30.7(3.9)
항정신병약물(mg/d) ³		594.5(201.3)

¹ 괄호 안의 수는 표준편차임.

² 양성 및 음성증상 척도

³ Chlorpromazine 상용량(APA, 1997)

* 나이, 교육 정도, SPM 점수의 경우, Mann-Whitney U 검정 상 p>0.05

측정도구

정상 통제군과 정신분열증 환자군의 정서적 특성은

표 9. 정상통제군과 정신분열증 환자군의 정서특성 점수 평균

	놀라움	두려움	분노	슬픔	역겨움	즐거움	총점	정서 표현	정서 인식	정서 조절
정상 통제군	2.80 (.96)	2.65 (.94)	1.67 (.83)	3.40 (.73)	3.24 (.75)	3.31 (.62)	17.07 (2.54)	42.06 (8.04)	46.77 (8.62)	45.14 (10.06)
정신분열증 환자군	2.02 (1.13)	2.06 (.91)	1.48 (.93)	2.04 (1.19)	2.14 (1.16)	2.82 (1.00)	12.56 (3.95)	42.06 (9.68)	47.92 (8.64)	44.22 (10.54)

연구 1에서 사용하였던 정서특성검사(이수정, 1997)와 정서인식력 수행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두 가지 검사는 모두 컴퓨터로 제어되도록 하였으며 컴퓨터 사용에 능숙하지 못한 참가자들을 위하여 임상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대신 자료를 입력시켜 주었다. 정서특성검사에 있어서의 신뢰도 지표로는 정서인식 .84, 정서조절 .83, 정서표현 .79의 내적 일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서인식력 검사의 전체 K-R 20은 .74였다.

연구절차

모든 피험자들은 개별적으로 검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검사를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정상 통제군이나 환자군이나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정상군의 경우 설명에서부터 검사를 완료하는 데까지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환자들의 경우 증세의 정도에 따라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던 환자에서부터 거의 50분이 소요되었던 환자에까지 다양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 설명하였으나 환자집단의 경우 모두 입원환자였기 때문에 병원의 심리검사실에서 검사를 수행하였다. 정상 통제군의 경우 심리학 실험을 위한 연구실에서 검사의 모든 절차가 수행되었다. 정서특성검사까지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제시되었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연구 1과 동일하였다.

연구결과

표 9에는 정상 통제군과 정신분열증 환자군의 정서특성검사 점수와 정서인식력 수행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요약되어 있다. 표 9에 제시된 정서검사들의 하위척도 평균들은 거의 모든 정상인들의 정서특성검사

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점수들보다 우수함을 보여준다. 총점 및 하위척도 점수들에 있어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여 보기 위하여 반복 측정치를 위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9개의 정서요인검사를 피험자내 변수로 하고 소속 집단을 피험자간 변수로 하여 변량분석을 한 결과 두 변수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8, 199} = 12.02, p < .001$).

정서측정치들 상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근원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이용하여 쌍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인식력 수행검사의 총점에 있어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의 평균은 정상인 평균보다 낮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_{206} = 9.38,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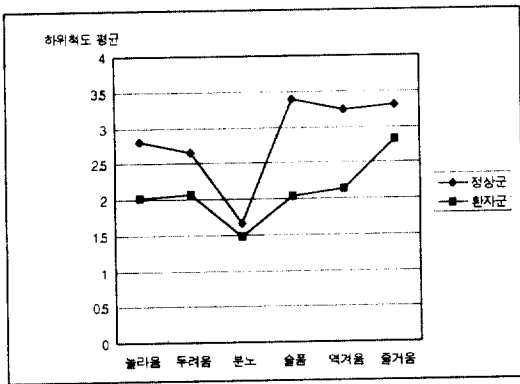


그림 4. 정상군과 환자군의 정서인식력 하위척도 평균

정서인식력 수행검사의 하위척도들 상에서의 집단간 평균 점수를 비교하여 본 결과, 분노조건($t_{206} = 1.38, n.s.$)을 제외한 놀라움($t_{206} = 4.74, p < .001$), 두려움($t_{206} = 3.85, p < .001$), 슬픔($t_{206} = 9.64, p < .001$), 역겨움($t_{206} = 7.78, p < .001$), 즐거움($t_{206} = 4.08, p < .001$) 조건에서 환자군의 평균 수행수준이 정상인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웠던 점은 Likert 방식으로 정서경험을 측정된 정서특성검사의 모든 하위척도 상에서 두 집단간의 평균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분열증 환자들도 Likert 척도 상에서는 자신의 정서경험을 그런대로 인식, 조절, 표현하고 있다고 대답했음을 시사한다. 그림 4는 각각의 정서 하위척도 상에서의 정상 통제군과 정신분열증 환자군의 평

균 점수들을 도식화하고 있다. 이 그림은 정상군과 환자군의 정서경험 상의 차이가 정서인식력 하위척도 상에서 더 민감하게 반영되어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그림 4).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필검사 상에서는 집단간 차가 두드러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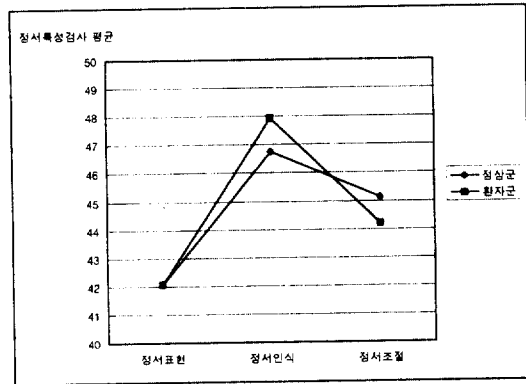


그림 5. 정상군과 환자군의 정서특성검사의 하위척도 평균

stepwise 방식으로 하위척도 점수들간의 공변량을 통제 한 판별함수를 산출하였을 때, 어떤 하위척도 점수들이 정상군과 환자군을 변별함에 있어 가장 유효한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6개의 정서인식력 하위척도 점수들과 정서특성검사의 하위 척도였던 정서인식, 조절, 표현력 정도를 예측변수로 포함시킨 경우, 변수들간의 공변량을 통제하고 나니 슬픔과 역겨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슬픔만이 모형에 포함되었을 시의 $F_{1, 206}$ 는 92.85이었고 슬픔과 역겨움이 함께 포함되었을 시 $F_{2, 199}$ 는 63.03이었다. 이들은 모두 유의도 .001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이들에 대한 Wilks' Lamda는 .68, .61이었다. 이 두 개의 예측변수로 산출된 정준 판별함수의 고유치는 .63이었고 이에 대한 χ^2 는 97.75($p < .001$)이었다. 표 10에는 이 정준 판별함수 상에서 각 예측치들이 지니는 좌표 값이 제시되어 있다. 이 함수 상에서 정상군은 .45의 값을 환자군은 -1.38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 변환된 구조행렬 상에서 개별 정서요인이 지니는 계수는 슬픔이 .86, 역겨움이 .69, 놀라움이 .31, 즐거움이 .27, 분노가 .26, 두려움이 .18, 정서인식이 .13, 정서조절이 -.03, 정서표현이 .01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논 의

정신분열증 환자군과 정상 통제군의 정서인식력 수행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 2의 결과는 현재 개발된 수행검사가 지필검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변별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슬픔과 역겨움 등 보다 복잡한 정서적 단서의 파악에 대하여서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정상군에 비하여 그 수행수준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고무적이었던 점은 애당초 현재와 같은 정서수행검사를 개발하고자 했던 목적을 연구 2의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상태를 반영함에 있어 문제해결 과제를 이용한 수행검사가 Likert형 검사지들보다 지각자들의 정서인식력을 왜곡 없이 더 정확하게 측정하여 준다는 것이다. Likert형 검사에서는 내적 혹은 외적 정서각성을 지각함에 있어 정상인들만큼 정서경험이 명확하다고 보고하였던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실제 문제해결 과제를 통하여 정서적 자극을 지각함에 있어서는 수행수준이 유의하게 더 낮았음이 이런 사실들을 추정하여 보게 한다. 그러나 현재 개발된 검사는 정서의 다양한 측면 중 정서적 단서에 대한 인식의 정도만을 측정할 뿐 표현이나 조절 등 다른 특성들은 측정하여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검사의 결과만으로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감정부전 증세를 모두 진단하여 줄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광범위한 감정부전 기제를 연구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포괄적인 검사절차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정서특성검사들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제해결력 과제로 정서를 측정하여 볼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과연 개인의 지적 수준과 이들 검사의 수행수준이 무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결과 지능과 현재 개발된 정서수행검사 점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못함이 확인된 바 있다. 여러 번 언급된 바이나 이는 현재 개발된 문항들이 매우 쉬웠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지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손상을 보이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현재 개발된 정서인식력 문제해결과제가 완전히 지적 능력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과제들 역시 일련의

추론과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2의 결과만을 토대로 정서능력 상의 손상이 인지적인 측면의 손상과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이 점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약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치더라도 현재와 같은 수행검사는 지필검사에 비하여 그 손상기전을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포착해 낼 것이란 점을 기대하여 보게 한다.

총 합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지각자들의 정서적 측면에서의 개인차가 일종의 능력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능력으로서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정답형 문제해결 과제를 제작하여 정서경험에서의 개인차를 양적 지표로 변환시키고 그 방법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유용한 개념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탐색하여 보았다. 연구의 이 같은 기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거집단으로 연구 1에서는 임상적 증세가 있는 정상인들을 피험자로 포함시켰고 연구 2에서는 정서적으로 가장 손상이 심한 정신분열증 병리집단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임상 표본에 접근하였던 이유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개발된 것과 같은 난이도가 매우 쉬운 정서능력검사의 변산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는 나름대로 이와 같은 다양한 피험자 집단의 모집이 점수의 변산성 확보에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1에서 전체 검사의 신뢰도가 .37 정도 밖에 되지 못하였던 것이 정신병리 집단을 포함한 연구 2에서 .73에까지 향상되었던 점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렇지만 현재의 결과는 연구에 포함되었던 임상집단의 정서장애 기제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지는 못한다. 이 점은 애당초 정서수행검사를 개발하고자 한 현 연구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후 보다 깊이 있는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상 통제군과 병리집단의 반응양식에서의 차가 정서인식력 수행검사의 사용으로 보다 정확하게 교

정될 수 있다는 점만을 기억해두고자 한다.

정서지능의 개념이 도래하면서 과연 정서가 지능으로 개념화되어도 되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 많은 이론가들이 반론을 제기하였다. 전통적인 정서연구자들은 특히 정서경험의 즉각성 및 범분화성을 근거로 하여 개인차의 가정이 허구적임(조은경, 1997, 참조)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표본을 대상으로 개발된 현재와 같은 수행검사들은 정서의 경험에 있어 안정적인 개인차를 가정하여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개인차는 적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주요한 능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임을 보다 가시적으로 짐작하여 보게 한다. 결국 안정적인 개인차가 있느냐는 문제는 그것을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되며, 측정방법의 문제에 관한 한, 현대의 진보적인 과학기술은, 인간의 미세한 경험 측면에서의 개인간 차이에 대해서도 조만간 보다 정밀한 방법을 개발하여 줄 것이라 기대하여 보게 한다.

참 고 문 헌

- 김정택 (1978). 특성 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혜 (1991). 자기 초점화 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봉건 (1990). 바이오 피드백훈련에 의한 본태성 고혈압의 혈압강하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정 (1997). 그림과 함께 보는 EQ 바로 알기. 서울: 동인.
- 이수정 (1999). 정서정보에 대한 의식적/비의식적 처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정 · 안석균 (2000).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정서조절 과정에 있어서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269-279.
- 이수정 ·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이영자 (1996).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호 · 송종용 (1993).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이주일 · 황석현 · 한정원 · 민경환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 조은경 (1997). 정서의 조절은 가능한가? 한국심리학회 1997 동계연구세미나 발표 논문집, 47-62.
- Archer, J., Hay, D. C., Young, A. W. (1992). Face processing in psychiatric condition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 45-61.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erenbaum, H., & Oltmanns, T. (1992). Emotional experience and expression in schizophrenia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37-44.
- Blaney, P. H. (1986). Affect and Memor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9(2), 229-246.
- Cacioppo, J., Gardner, W. & Bernstone, G. (1999). The affect system has parallel and integrative processing components: From follows fu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839-855.
- Curtis, C. E., Lebow, B., Lake, D. S., Katsanis, J., & Iacono, W. G. (1999). Acoustic startle reflex in schizophrenia patients and their first-degree relatives: evidence of normal emotional modulation. *Psychophysiology*, 36, 469-475.
- Ekman, P. & Davidson R. J. (1994), *Nature of Emo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Ekman, P. (1994). All emotions are basic. In P. Ekman & R. J. Davidson (Ed.), *Nature of Emo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Hare, R. (1994). *Emotion in the criminal psychopath*:

- Fear image proc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222-256.
- Izard, C. E.(1992). Basic emotions, relations among emotions, and emotion-cognition relations. *Psychological Review*, 99, 561-565.
- Kring, A. M., & Neal, J. M.(1996). Do schizophrenic patients show a disjunctive relationship among expressive, experimental, and psychophysiological component of emo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249-257.
- Lang, P. J.(1984). Cognition in emotion: concept and action. In: Izard, C., Kagan, J., & Rajone, R., (eds),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92-226.
- Lang, P. J.(1988). What are the data of emotion? In V. Hamilton, G. Bower, & N. Frijda (Eds.), *Cognitive science perspectives on emotion and motivation* (pp. 173-194). Amsterdam: Martinus Nijhoff.
- Levenstone, G. K., Patrick, C. J., Bradley, M. M., & Lang, P. J. (2000). The psychopath as observer: emotion and attention in picture process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3), 373-385.
- Mathews, A., Mogg, K., May, J., & Eysenck, M. (1989). Implicit and explicit memory bias in Anxie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3), 236-240.
- Mathews, G. (1995). Essay reviews: Anxiety, emotion and cognitive theory: Diversity and innov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6 (2), 315-319.
- Mogg, K., Mathews, A., & Weinman, J. (1987). Memory bias in clinical anxie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2), 94-98.
- Parrot, W. G., & Hertel, P.(1999). Research methods in cognition and emotion. In: Dalgeish, T, Power, M. J., (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1st ed. Chichester: John Wiley & Sons pp. 61-82.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lovey, P., & Mayer, J. D.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pp. 105-153). New York: Basic Books.
- Scherer, K. R. & Wallbott, H. G. (1996). Evidence for universality and cultural variation of differential emotion response patter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310-328.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Sternberg, R. J. (1985). *Beyond IQ: a triarchic theory of human intelligenc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winkles, A. & Guiliano, T. A. (1995). The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mood awareness: Attention directed toward one's mood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934-949.
- Walker, E. F., McGuire, M., Bettes, B. (1984). Recognition and identification of facial stimuli by schizophrenics and patients with affective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 37-44.
- Weinberger, D. A., & Schwartz, G. E., & Davidson, R. J.,(1979). Low anxious, high anxious and repressive coping styles: Psychometric patterns and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responses to str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369-380.
- Witkin, H. A., Mednick, S. A., Schulsinger, P., Bakkes-trom, E., Christiansen, K. O., Goodenough, D. R., Hirschhorn, K., Lundsteen, C., Owen, D. R., Philip, J., Rubin, D. B., & Stocking, M. (1976). Criminality in XYY and XXY men. *Science*, 193, 547-555.

부록. 여섯 가지 기본 정서의 유발상황

	초등학생(n=36)	중학생(n=34)	고등학생(n=35)	대학생(n=40)
즐거움	칭찬 받았을 때 8	놀이기구 8	용돈 받을 때 28	주위로부터의 인정 5
	생일날 파티, 선물 16	선물 5	공부 잘한다고 칭찬 20	성적우수, 시험합격 25
	가족 사랑할 때 7	상 받았을 때 8	친구와 놀 때 23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15
	세뱃돈, 용돈 받을 때 3	가족, 친구와 놀 때 15	가족 화목 13	제대했을 때 7
	놀이터에서 볼 때 12	가족이 기뻐 할 때 3	여행 12	사랑하는 사람과 10
	아프거나 다쳤을 때 8	슬픈 영화, 만화 3	가족이 아플 때 21	부모님의 병고 20
슬픔	혼날 때(부모, 선생님) 20	조부모 돌아가셨을 때 6	꾸중들을 때 18	가족, 친지의 죽음 34
	부모 싸울 때 6	가족, 친지 아프거나 다쳤을 때 9	마돌림받을 때 14	대학 불합격 15
	엄마 아플 때 3	헤어질 때 3	부모님 싸우실 때 5	슬픈 영화 또는 애완동물의 죽음 8
	조부모 돌아가셨을 때 2	혼날 때 11	누가 죽었을 때 11	연인과의 이별 7
	누가 때릴 때 19	누가 괴롭힐 때 21	누가 놀릴 때 17	사회문제 12
	친구와 싸웠을 때 7	싸울 때 8	동생, 형과 싸울 때 15	무시당하거나 악용됨 25
분노	물건 빼앗겼을 때 2	형제가 맘대로 할 때 3	혼날 때(억울하게) 8	배신 10
	안 놀아 줄 때 2	약속 안 지킬 때 4	친구와 싸울 때 8	기대에 못미치는 나 자신에게 7
	놀림 당했을 때 7	혼날 때(억울하게) 3	무시, 이해 못할 때 10	부당한 처벌 15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7	물러 블레이드 2	갑자기 나타나 놀래 킴 11	놀이기구 탈 때 7
	놀래 킴 때 10	눈이 많이 와서 2	친등, 번개 4	기대하지 않은 일 12
	어떤 소리가 나서 2	좋은 선물을 받고 1	밤길 갈 때 8	놀래켰을 때 22
두려움	바람이 불어서 1		놀이기구 3	
	숨비꼭질 할 때 1		선물 1	
	갑자기 아무도 없을 때 5	공포영화 6	부모 화내실 때 2	무서운 꿈, 가위 놀릴 때 18
	유령, 귀신 7	귀신, 유령 6	무서운 영화, 이야기 17	공포영화 15
	무서운 영화, 꿈, 얘기 8	깜깜한 밤, 정전 4	혼자 있을 때 12	높거나 위험한 곳 3
	어두울 때 4	혼자 집에 있을 때 8	무서운 꿈 4	사고 5
역겨움	큰 개가 나타났을 때 2	아빠 화내실 때 5	개가 물려고 할 때 2	어둡거나 낯선 곳에서 혼자 20
	토했을 때 5	화장실에서 5	더러운 것 봤을 때 15	쓰레기, 음식찌꺼기 10
	벌레 죽은 것 봤을 때 4	이상한 것 먹을 때 2	화장실 9	구더기, 바퀴벌레 5
	친구가 오줌 샀을 때 3	상한 음식 3	토할 때 4	토사물 보았을 때 12
	화장실에서 4	더러운, 징그러운 것 5	상한 음식 2	인터넷 성인사이트 20
	더러운 것 봤을 때 6			역겹게 잘난 척 9

Development of An Emotional Awareness Test Consisting of Problem Solving Tasks

Soo Jung Lee

Division of Gener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intended to develop an instrument to measure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awareness.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weaknesses of verbal self-report, computer based problem-solving questions were composed of various nonverbal stimuli such as facial and event pictures and emotional cartoons. Four items per six emotions (surprise, fear, anger, sorrow, disgust, joy) were chosen into the final version of a performance test, based on item analyses and validity indices. Analyses of variance and discriminant analyses showed a emotional performance test could classify participants with relatively high depression and high anxiety. Furthermore, a CBT of emotional performance seemed to achieve much more accuracy assessing emotional dysfunctions of schizophrenics rather than a self-report assessment tools.

Keywords: emotional awareness, performance test, emotional stimuli, emotional awareness of schizophrenics

원고 접수: 2001년 9월 25일

심사 통과: 2001년 11월 14일